

토요일엔 문화학교서 꿈을 그려보자

광주 '꿈다락' 토요일학교
26개 단체 참여
공예·문학·음악·미술·전통문화
'나도 꼬마 요리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작가가 되어볼까, 요리사가 되어볼까, 꿈을 그려보자.'
광주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들이 봄을 맞아 '꿈다락 토요일학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꿈다락'은 '내 꿈의 아지트'라는 의미를 담은 '학교 밖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미술관, 협동조합 등 26개 단체가 오는 21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공예, 문학, 음악, 미술, 전통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유미술관은 '숨은 패턴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상 속 다양한 패턴과 무늬의 자연 속 패턴, 중심사 일대의 한국 전통 패턴 등을 활용해 옷으로 프린팅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나만의 패턴도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232-7335.

청소년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문화행동 S#ARP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D. I.Y 소셜페스티벌'은 청소년 소셜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축제 만들기를 넘어 인문학, 스토리텔링, 자원 조사 등을 통해 축제를 만든다. 지난해는 라면페스티벌 '라면요리 대회' 등을 진행했다. 문의 010-5616-1318.

ESR작은도서관은 '끼 발산, 독(讀) 해아 산다'를 주제로 '책 더하기 문화·예술', '책 더하기 연극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에 담긴 콘텐트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결합한 '책 더하기'는 음악 속 이야기, 미술 속 이야기, 문학 속 이야기, 연극 속 이야기를 학생들이



광주 지역 미술관, 협동조합, 도서관 등 26개 문화예술 단체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공예,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극, 인형극, 연극 등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연극을 진행한다. 문의 010-8244-9179.

성균관 여성 유도회 광주시 본부는 '엄마랑 함께 타는 선비학당 타임머신' 시즌2를 진행한다.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자소화, 한복 입기, 예절, 다도, 전통음악 만들어보기, 전통공예, 민속놀이, 선비체험, 전통혼례·성년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10-4612-5702.

신창동 유적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창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진행하는 '타임캡슐을 타고 2천년전 신창동으로 함께가요 ~'에서는 신창동 유적지의 전반적인 이해와 당대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이론 등을 배운다. 신창동 유적지 현장탐방(국립광주박물관, 풍영정

등) 및 체험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문의 010-6627-1452.

함세아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놀이터'에서는 음악치료를 기본으로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배우게 된다. 또 합주, 합창 등을 통해 어울림 문화를 익힐 수 있다. 문의 010-3608-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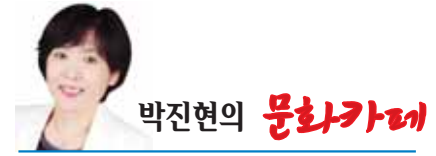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가 진행하는 '나도 멋진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그림책의 구조 및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이론 학습부터 제작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멘토, 멘티를 형성할 계획이다. 문의 010-8602-2931.

토리협동조합이 진행하는 '꼬마요리사의 맛있는 Art school'은 미술, 요리, 놀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알타미다 동굴

벽화, 고대미술과 근대 서양 미술사 등을 공부한다. 미술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이나 느낌을 요리로 표현하는 요리수업,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요리 떠올리기 등 예술과 요리가 접목돼 있다. 문의 010-8613-5962.

'대의동 꼬마디렉터'는 은암미술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인예술시장, 아시아문화전당 등 주변지역 탐방을 통해 예술의 거리 주변 일대를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기획이다. 문의 010-6793-3206. 나무로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나야! 우리 동네 똑딱이 목공'은 목공기술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목공예 제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6204-5594.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권택 지인이 '안보면 후회'라며 'Seoulites(서울의 장소)라는 유튜브 동영상 카톡으로 보내왔다. 한국에 거주한 한 외국인이 촬영한 3분30초짜리 동영상에는 송례문, 경복궁, 올림피아공원, 서울역, 한강 등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들의 야경이 담겨있었다. 황홀한 일몰 풍경을 시작으로 '빛의 속도'로 하나 둘씩 켜지는 조명, 그리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야경은 환상, 그 자체였다.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이 맞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

광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의 사건을 압축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기법)로 찍은 영상은 국악퓨전밴드 별마루의 경쾌한 음악 '취불놀이'와 어우러져 감흥을 더했다. 한국사람이지만 당장이라도 서울행 티켓을 끊고 싶었다. 서울의 명소 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동네의 허름한 모습도 '별이 내리는 마을'로 되살아 났다. 도시의 치부까지 완벽하게 가려주는 밤의 마법을 보는 듯 했다.

서울의 환상적인 밤을 본 순간 문득 2년 전 취재자 방목했던 상하이의 야경이 떠올랐다. 상하이에 가면 꼭 봐야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야경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의 상하이는 낮보다 더욱 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황푸강을 따라 유립동 건물들이 길게 늘어져있는 와이탄에서 보는 야경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명품'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은 독특한 야경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

인다. 맨해튼, 홍콩섬과 구룡반도, 파리 샹젤리제 거리, 와이탄과 푸동은 빼어난 야경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42번가의 휘황찬란한 밤거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뉴욕으로 달려간다.

야에 '백만불 야경'이란 이름을 내걸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홍콩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홍콩 빅토리아 피크(peak)에서 내려다 본 '야경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분명 낮에는 도심의 혼물이었던 건물이 감쪽같이 화려한 밤의 랜드

마크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어둠과 칙칙했던 광주의 밤 거리가 밝아진다. 광주시가 야경관광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표준 LED 규격제품을 모은다. 한국사람이지만 당장이라도 서울행 티켓을 끊고 싶었다. 서울의 명소 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동네의 허름한 모습도 '별이 내리는 마을'로 되살아 났다. 도시의 치부까지 완벽하게 가려주는 밤의 마법을 보는 듯 했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형형색색의 빛의 향연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다. 서울과 부산 등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타 지역들이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 공을 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형형색색의 빛의 향연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다. 서울과 부산 등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타 지역들이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 공을 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형형색색의 빛의 향연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다. 서울과 부산 등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타 지역들이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 공을 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 특화 레지던스 제4기 입주작가 선정됐다. 미디어아티스트 권승찬, 김자이, 손승민, 이조흠, 정선휘 씨와 스튜디오링 미디어 그룹 비빔밥팀(대표 박상화)이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가로 뽑혔다.

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6일까지 입주작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1명의 작가 가운데 이들 6팀을 최종 선정했다.

정선휘·이조흠·손승민씨 등 3명의 작가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선정됐다. 권승

권승찬·김자이·손승민·이조흠·정선휘·'비빔밥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가 선정

찬씨는 2012~13년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 후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의 북경창작스튜디오에서 1년간 입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자이 작가는 2014년에 광주시립민속

박물관에서 개최한 '그룹전-국제여성미술제-꽃의 정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은암미술관의 '목은공방' 전시 등을 열었다.

영상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승민씨는 2014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

던스 작가로 활동했던 영상그룹 '개미필름'의 대표 작가다.

비빔밥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학, 무용, 회화, 미디어아트, 평론가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융합그룹으로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 작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공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사무기구와 창작지원금,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문의 062-670-7944. /오광록기자 kroh@

임권택 감독 아시안필름어워즈 공로상 수상

장성 출신 임권택 감독이 오는 25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안필름어워즈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 제작사인 명필름은 17일 이같이 전하면서 "아시아 영화 발전에 공헌한 영화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밝혔다.

아시안필름어워즈는 공로상 선정 이유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은 인간

본성의 깊은 이해와 행동, 성찰을 통해 그 시대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안필름어워즈는 아시아 영화 예술인들을 발탁하고 격려하는 국제행사로 지난 2007년부터 홍콩국제영화제 주관으로 열린다. 작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와도 교류국제영화제가 함께하고 있다.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으로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사립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